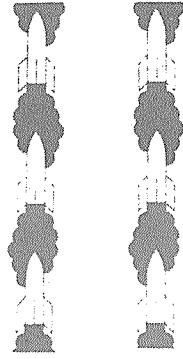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(1989. 6. 1 ~ 6. 30)

- 6. 1 : 中振公, 中小企業의 시설자동화를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325個 社에 이르고 있고 생산자동화자금 300억원도 시설자동화 사업에 이어 지급이 완료됐다.
- 6. 2 : 遞信部, 국산 全電子式 교환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대외의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베트남에 交渉團을 파견한다고.
- 6. 2 : 美 PSE, 컴퓨터의 메모리 부품인 반도체를 先物去來 품목으로 지정, '90년초부터 실시한다고.
- 6. 3 : 科技處, 國策研究開發 사업을 大型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10대중점사업분야를 선정,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국책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용키로.
- 6. 6 : 通信公,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전화선에 연결,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가정학습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고.
- 6. 6 : 通信公, 情報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통신시범망을 구축, 운용키로.
- 6. 6 : 遞信部, 이동통신 현대화 계획안을 마련 '92년부터 차량전화용 교환기를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첨단 디지털 시설로 전환한다고.
- 6. 8 : 特許廳, 상표심사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등록된 도형상표를 도형 형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키로.
- 6. 8 : 通信公, 21세기 초 선진통신국 진입을 위해 핵심기술인 全電子교환기 관련기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.
- 6. 12 : 通信公, '91년 민간업체에 개방될 CATV 서비스에 대비, 올해 하반기부터 회선망이 구축된다고.

- 6. 12 : 遞信部, 컴퓨터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通信公社, 데이터通信, 전자통신연구소, 통신진흥, 정보문화센터 등 5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추진키로.
- 6. 12 : 遞信部, 시내통화 時分制를 내년 1월초로 연기한다고.
- 6. 13 : 政府,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중추적인 국책 종합연구 기관으로 성장할 KIST가 KAIST로 부러 분리 독립돼 설립됐다고.
- 6. 14 : 科技處,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기초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역별 대학에 高價의 연구장비를 갖춘 우수기초연구센터를 설립. 공동이용토록 할 방침이라고.
- 6. 15 : 遞信部,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키 위해 국내 민간업체에 대해 VAN 참여 문호를 사실상 개방키로 했다고.
- 6. 16 : 科技處, 신급속 첨단 고분자

파인 세라믹 등 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씩의 연구비를 투입할 방침이라고.

- 6. 16 : 韓銀, 자기자본 비율 등 기업체의 재무상태나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는 40개 항목의 기준을 새로마련 각 시중 은행에 시달렸다고.
- 6. 20 : 財務部,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 진출지역을 각 국제금융 시장으로 다변화 하고 금융의 證券化에 대응, 상업은행에서 투자 은행으로 기능을 다양화 시키기로.
- 6. 21 : 政府,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기술 교류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.
- 6. 24 : 科技研, 형태를 변형시켜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스스로 제 모습을 되찾는 形狀記憶合金의 實用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.
- 6. 23 : 日 通産性, 아시아·태평양 국가간에 전자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해 '9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150억円을 투입 「아시아·태평양 전자정보 유통에 관한 연구 협력」 사업에 착수한다고.
- 6. 24 : 通信公, 기존 전화망과 새로 설치될 전송로를 이용 내년부터 非음성 서비스를 본격 실용화하기로.
- 6. 26 : 遞信部, 국내통신시장 개방과 2000년대 초 ISDN 실용화에 대비 올해 하반기부터 체신부·通信公·데이터통신·通信研 및 통신관련 생산업체 공동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관련 전담반을 통해 국내의 기술기준과 통신기술 체계를 정립해 나아가기로.